

## 중년남성의 대인관계 만족도, 의사소통역량,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장정수<sup>1</sup>, 최동원<sup>2\*</sup>

<sup>1</sup>구로다나병원 수간호사, <sup>2</sup>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 The effect of interpersonal satisfaction, communication capacity, and self-efficacy on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dle-aged men

Jung-Soo Jang<sup>1</sup>, Dongwon Choi<sup>2\*</sup>

<sup>1</sup>Head nurse, Guro Dana Hospital

<sup>2</sup>Associated professor, School of Nursing, Incheon Catholic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중년남성의 대인관계 만족도, 의사소통역량,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고, 중년남성의 심리적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다섯 개의 회사에 재직 중인 중년남성 208명이었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t-test, 분산분석, Pearson's 상관계수 및 위계적 회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년남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 $F=24.30, p=.000$ ), 의사소통역량( $\beta=.23, t=3.07, p=.002$ )과 자기효능감( $\beta=.44, t=6.91, p=.000$ )이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59.4%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중년남성의 의사소통역량 및 자기효능감 향상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중년기, 남성, 대인관계,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심리적안녕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es of the communication capability,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the feeling of self-efficacy of the middle aged men on their psychological feeling of well-being. The survey was performed on 208 employees of 5 ordinary corporations.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analysed with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Study findings revealed that the factors that had the influence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middle-aged men were the communication ability( $\beta=.23, t=3.07, p=.002$ ) and self-efficacy( $\beta=.44, t=6.91, p=.000$ ). And the explanation power of the regression model appeared as being 59.4%( $F=24.30, p=.000$ ). The findings indicate the necessity of developing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for the middle-aged men to improve psychological well-being by enhancing communication ability and self-efficacy.

**Key Words** : Middle-aged, Men, Interpersonal relations, Communication, Self efficacy, Psychological adaptation.

\*This paper is part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Corresponding Author : Dongwon Choi(dionia@iccu.ac.kr)

Received June 25, 2021

Accepted August 20, 2021

Revised August 6, 2021

Published August 28, 2021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중년기는 생물학적 연령 만 40세에서 64세로 구분되는 시기로 전 연령을 거쳐 개인·가족·사회에서 중심이 되어 주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성기이기도 하나, 점진적 건강의 쇠퇴와 배우자와의 불화, 자녀의 독립 혹은 퇴직 등 삶의 위기를 겪는 시기로 다양한 삶의 과정들을 경험하게 된다[1].

특히 이 중년기 남성은 결혼과 가정 및 성취한 것과 실패한 것에 대하여 평가하는 과정에서 초조함, 에너지와 자신감 소실, 불안, 우울, 피로감, 수면문제, 집중력 저하 등의 심리적 문제를 보이고, 대인관계와 역할의 상실과 함께 신체적·사회적 기능의 상실로 인해 심리적 안녕을 위협 받는다[2]. 더욱이 이들 40-50대 중년 남성은 생계부양자로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가족 내에서의 역할수행의 부담감으로 인해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 결과, 50대 우울증 남성의 수는 2007년 2만 6,800명에서 2016년 3만 9,463명으로 2007년보다는 32%나 증가한 수치를 보였고[3], 50대 중년 남성사망률은 여성에 비해 2.9배로 나타났으며, 음주 문제로 인한 사망률 역시 여성의 경우는 20대와 80대에 증가하나, 남성은 30대부터 중년기인 40대와 50대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4]. 특히 자살률은 중년여성보다 중년남성이 2-3배 높는데[4,5], 이는 자살에 이르도록 하는 우울, 스트레스, 정신적 압박감 등의 심리적 위기감이 심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3],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적 안녕감이 대두되고 있다[6-8].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 요소로 알려진 행복, 삶의 만족감, 삶의 질 등 심리적 측면의 합을 의미한다[9-11]. 자기를 그대로 수용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며, 자기의 행동을 독립적으로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 즉 주위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결정능력을 갖추게 한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은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향상 동기를 만들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근본이 된다[6]. 즉 중년기 남성들이 심리적 안녕감을 가진다는 것은 전성기인 현재를 유지하며 다가오는 위기와 변화를 함께 극복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심리적 자산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 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1].

이와 같이 여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데 있어 대인 관계 만족도는 사회생활에서 자신감으로 도전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작용한다[12]. 인간은 관계를 맺고, 집단 내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평가를 통해 자기에 대해 평가한다.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에 따라 적절하고 건전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지 평가되고 있다. 개개인은 대인관계에서의 만족도를 통해 자신이 남으로부터 인정 및 지지, 애정을 받고 있음을 느끼며, 타인과의 교류와 유사한 감정을 통해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자아를 성취할 수 있다[13]. 한국사회의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대인관계 만족도는 심리적 안녕감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14]. 사회생활을 하는 중년남성은 여러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며 살고 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얻은 만족감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을 느낀다. 대인관계 속에서 발생한 문제를 의사소통을 통해 다른 사람과 함께 해결하고 이에 대한 만족감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을 느낄 수 있다[12].

의사소통역량은 개개인뿐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기능과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도록 하고, 중년남성에게 여러 상황과 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도움을 주어, 중년기의 위기를 극복하여 과업을 완수하는 데에 중요한 지지자원이 된다[3,15]. 선행 연구들에서도 중년기 부부의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를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하고 이혼율을 낮춘다고 하였고, 직장에서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의사소통능력이 업무성과를 높인다고 하였다[3]. 의사소통역량은 업무 부담감을 낮추고 직무에 몰입하도록 하여 만족감을 증진시키고, 자기를 인정하고, 미래의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자기효능감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7]. 또한, 서로간의 소통 속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심리적 위기감을 저하시키고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2,16].

자기효능감은 특정 상황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를 말하며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도움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17].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며 스스로 선택하고 노력하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중년기에 자신감 및 안정감을 주고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심리적 자원이다[18]. 자기효능감은 원하는 결과를

성공적으로 성취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기상을 만들어 낸다[19].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심리적 안녕감을 이루는 유능감과 신뢰감이 있다[17].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가정과 직장 간 갈등이 발생하면 대처에 대한 자신감을 통해 오히려 이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찾을 수 있다[17,20]. 이처럼 중년남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있어 자기효능감의 긍정적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중년남성의 남성 위기, 다중역할 몰입, 노후 불안, 내·외적 특성과 직업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고한 기존 연구는 있으나[7,21-23], 중년남성의 심리적 안녕감의 중요성에도, 관련 연구가 부족하고, 특히 대인관계, 의사소통 및 자기효능감과 같은 중년남성의 내적 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남성의 대인관계 만족도와 의사소통역량, 자기효능감과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을 강화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중년남성의 대인관계 만족도, 의사소통역량과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고,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만족도, 의사소통역량, 자기효능감 및 심리적 안녕감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대인관계 만족도, 의사소통역량, 자기효능감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년남성의 대인관계 만족도, 의사소통역량,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한 40세 이상 65세 미만 의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서 예측변수는 4개, 선행연구[24]의 결정계수( $R^2$ )를 반영한 중간 효과 크기( $d$ )=0.15, 유의수준( $\alpha$ )=.05, 검정력( $1-\beta$ )=.95로 설정하고 산출한 결과 표본의 크기는 174명이었고, 탈락률을 고려한 230명을 대상자 수로 하였다. 불성실한 설문지 22부를 제외하고 최종 208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대인관계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Guerney[25]의 관계변화 도구를 Moon[26]이 우리 실정 맞게 번안한 대인관계 만족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총 25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Moon[2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는 .92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1이다.

#### 2.3.2. 의사소통역량

의사소통역량은 Rubin[27]이 개발한 도구를 Hur[28]가 우리 정서에 맞게 수정·보완한 상호소통능력 도구(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GICC-45)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45문항으로 구성된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역량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Hur[2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75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0이다.

#### 2.3.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29]이 개발하고 Hong[30]이 수정과 번안한 자기효능감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3문항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 17문항, 사회적 자기효능감 6문항으로 구성된 Likert 5점 척도이고 점

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Hong[3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6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6이다.

2.3.4.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은 Ryff[31]이 개발한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PWBS)을 Kim 등[6]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46문항으로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환경지배, 개인적 성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으로 평가한다. Kim 등[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1이다.

2.4 자료 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2019년 8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일반기업 5곳에 근무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다. 연구의 목적, 대상자 선정기준, 설문지 작성방법,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자기보고방법으로 시행하였다. 설문조사에는 30분가량 소모되었고, 모든 설문대상자에게는 설문 종료 후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만족도, 의사소통역량,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

감 정도는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위계적 회귀로 분석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I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2019-ICCU-IRB-5)의 승인을 받았으며 참여자의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는 일절 수집하지 않았다. 연구 목적 이외에는 자료를 사용하지 않음과 대상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연구 참여에 대한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았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40대인 군(74.0%)이 대부분이었고, 평균 46.6세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63.0%), 학력은 학사 학위 이상(86.6%)이 가장 많았다. 배우자 있는 군이 81.7%이었고, 가족 수는 1-3명인 군이 가장 많았다(82.7%). 사무직군이 46.1%로 가장 많았으며, 월소득은 500만원 이상 군이 60.1%로 가장 많았다. 근무연수는 20년 이상인 군(29.3%)이 가장 많았고, 직업만족도는 '만족한다'인 군이 57.2%로 가장 많았다. 건강상태는 '보통'인 군이 63.5%로 가장 많았고, 노후불안은 '보통(5~7)'이라고 한 군이 41.8%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5.91점으로 Table 1과 같다.

Table 1. Communication ability, Interpersonal satisfaction, Self-effica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8)

Characteristics	N	%	Interpersonal satisfaction		Communication ability		Self-efficacy		Psychological well-being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Age	40 ≤ <50	154	74.0	3.46±0.40	-1.501 (.135)	3.52±0.31	-1.388 (.167)	3.47±0.42	-.397 (.692)	3.42±0.38	.357 (.722)
	50 ≤	54	26.0	3.55±0.36		3.59±0.36		3.50±0.45		3.39±0.37	
Religion	None	131	63.0	3.43±0.42	-3.025 (.003)	3.48±0.33	-3.081 (.002)	3.47±0.43	.289 (.773)	3.38±0.39	-1.360 (.175)
	Existence	77	37.0	3.59±0.33		3.62±0.30		3.49±0.42		3.46±0.35	
education	≤High school <sup>a</sup>	28	13.5	3.38±0.33	1.654 (.194)	3.50±0.28	1.683 (.188)	3.54±0.40	.536 (.586)	3.26±0.25	3.827 (.023) b,c <sup>a</sup>
	College degree <sup>b</sup>	137	65.8	3.49±0.39		3.52±0.32		3.46±0.41		3.41±0.36	
	Master's degree <sup>c</sup>	43	20.7	3.55±0.45		3.62±0.36		3.49±0.51		3.51±0.46	
Spouse	Existence	170	81.7	3.51±0.37	1.619 (.107)	3.55±0.31	.964 (.336)	3.48±0.42	.495 (.621)	3.42±0.36	1.090 (.277)
	None	38	18.3	3.39±0.47		3.49±0.39		3.42±0.36		3.35±0.42	

(Continued...)

**Table 1. Communication ability, Interpersonal satisfaction, Self-effica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8)**

Characteristics		N	%	Interpersonal satisfaction		Communication ability		Self-efficacy		Psychological well-being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Family size	Single <sup>a</sup>	25	12.0	3.40±0.39	2,575 (.079)	3.49±0.36	1,108 (.332)	3.34±0.45	5,997 (.003) b,c)a	3.28±0.42	4,141 (.017) b,c)a
	2-4 <sup>b</sup>	172	82.7	3.48±0.40		3.53±0.31		3.47±0.41		3.41±0.36	
	5≤ <sup>c</sup>	11	5.3	3.72±0.26		3.67±0.37		3.86±0.39		3.66±0.35	
Job Group	Business work <sup>a</sup>	33	15.9	3.57±0.29	1,429 (.242)	3.59±0.27	.967 (.382)	3.56±0.39	.976 (.379)	3.44±0.29	.417 (.660)
	Technical post <sup>b</sup>	79	38.0	3.44±0.37		3.50±0.33		3.48±0.42		3.38±0.37	
	Office job <sup>c</sup>	96	46.1	3.50±0.44		3.55±0.33		3.48±0.43		3.42±0.41	
Monthly income (₩ 1,000)	<3,000 <sup>a</sup>	15	7.2	3.13±0.45	8,441 (<.001) b,c)a	3.24±0.33	8,167 (<.001) b,c)a	3.19±0.50	4,371 (.014) b,c)a	3.05±0.40	11,284 (<.001) b,c)a
	3,000≤, <5000 <sup>b</sup>	68	32.7	3.48±0.37		3.54±0.30		3.47±0.38		3.39±0.32	
	5000≤	125	60.1	3.57±0.38		3.60±0.34		3.55±0.48		3.52±0.41	
Years of working (year)	<5	21	10.1	3.43±0.44	.502 (.734)	3.46±0.32	.701 (.592)	3.41±0.45	.969 (.426)	3.30±0.36	1,322 (.263)
	5≤, <10	30	14.4	3.56±0.52		3.60±0.34		3.60±0.39		3.51±0.40	
	10≤, <15	50	24.0	3.51±0.36		3.54±0.31		3.51±0.41		3.45±0.39	
	15≤, <20	46	22.2	3.45±0.37		3.51±0.33		3.44±0.47		3.41±0.40	
	20≤	61	29.3	3.48±0.35		3.55±0.33	3.44±0.41	3.37±0.33			
Job satisfaction	Not satisfied <sup>a</sup>	16	7.7	3.28±0.38	12,502 (<.001) c)a,b	3.34±0.26	15,803 (<.001) c)a,b	3.24±0.41	10,296 (<.001) c)a,b	3.15±0.38	18,979 (<.001) c)a,b
	Moderate <sup>b</sup>	73	35.1	3.35±0.40		3.42±0.33		3.35±0.45		3.26±0.33	
	Satisfied <sup>c</sup>	119	57.2	3.60±0.36		3.64±0.29		3.58±0.38		3.54±0.35	
Fatigue level	Normal <sup>a</sup>	100	48.1	3.53±0.38	2,854 (.060)	3.58±0.30	2,340 (.099)	3.52±0.41	1,302 (.274)	3.47±0.33	2,835 (.067)
	Moderate <sup>b</sup>	88	42.3	3.41±0.41		3.48±0.33		3.42±0.43		3.35±0.38	
	High <sup>c</sup>	20	9.6	3.58±0.40		3.57±0.35		3.46±0.50		3.37±0.51	
Health status	Bad <sup>a</sup>	35	16.8	3.25±0.50	9,946 (<.001) b,c)a	3.39±0.38	6,964 (.007) b,c)a	3.26±0.53	6,363 (.002) b,c)a	3.22±0.47	6,481 (.002) b,c)a
	Moderate <sup>b</sup>	132	63.5	3.50±0.34		3.54±0.30		3.50±0.38		3.43±0.33	
	Good <sup>c</sup>	41	19.7	3.63±0.37		3.66±0.31		3.58±0.41		3.51±0.38	
Perception of anxiety about old age	Low(1-4) <sup>a</sup>	62	29.8	3.65±0.36	8,538 (<.001) a,b)c	3.67±0.32	8,017 (<.001) a,b)c	3.55±0.44	3,133 (.046) a,b)c	3.52±0.39	7,693 (.007) a,b)c
	Moderate(5-7) <sup>b</sup>	87	41.8	3.44±0.39		3.50±0.30		3.50±0.41		3.43±0.32	
	High(8-11) <sup>c</sup>	59	28.4	3.38±0.38		3.45±0.32		3.36±0.43		3.27±0.39	

\*Scheffe, SD=Standard deviation

**Table 2. Level of Communication ability, Interpersonal satisfaction, Self-effica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N=208)**

	Mean±SD	Range	Mini	Max
Interpersonal satisfaction	3.49±0.39	1-5	2.30	4.69
Communication ability	3.54±0.32	1-5	2.53	4.44
Self-efficacy	3.48±0.43	1-5	2.24	4.69
Psychological well-being	3.41±0.37	1-5	2.27	4.70

SD=Standard deviation

**3.2 대상자의 대인관계 만족도, 의사소통역량,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 정도**

대인관계 만족도는 3.49±0.39점, 의사소통역량은 3.54±0.32점, 자기효능감은 3.48±0.43점, 심리적 안녕감은 3.41±0.37점으로 Table 2과 같다.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만족도, 의사소통역량, 자기효능감 및 심리적안녕감**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만족도, 의사소통역량, 자기효능감 및 심리적안녕감의 차이는 Table1에 제시하였다. 대인관계 만족도는 종교(t=-3.025, p=.003),

가계소득( $F=8.441, p<.001$ ), 직업만족도( $F=12.502, p<.001$ ), 건강상태( $F=9.946, p<.001$ ), 노후불안( $F=8.538,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의사소통역량은 종교( $t=-3.081, p=.002$ ), 가정 월수입( $F=8.167, p<.001$ ), 직업만족도( $F=15.803, p<.001$ ), 건강상태( $F=6.964, p=.001$ ), 노후불안( $F=8.017, p<.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기효능감은 가족 수( $F=5.997, p=.003$ ), 가정 월수입( $F=4.371, p=.014$ ), 직업만족도( $F=10.296, p<.001$ ), 건강상태( $F=6.363, p=.002$ ), 노후불안( $F=3.133, p=.046$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심리적 안녕감은 학력( $F=3.827, p=.023$ ), 가족 수( $F=4.141, p=.017$ ), 가정 월수입( $F=11.284, p<.001$ ), 직업만족도( $F=18.979, p<.001$ ), 건강상태( $F=6.481, p=.002$ ), 노후불안( $F=7.693, p=.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3.4 대상자의 대인관계 만족도, 의사소통역량,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간의 상관관계

심리적 안녕감은 대인관계 만족도( $r=.600, p<.001$ ), 의사소통역량( $r=.662, p<.001$ ), 자기효능감( $r=.701, p<.001$ )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의사소통역량과 대인관계 만족도( $r=.729, p<.001$ ) 및 자기효능감( $r=.676, p<.001$ )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인관계 만족도와 자기효능감( $r=.601, p<.001$ )도 양의 상관관계로 Table 3과 같다.

Table 3. Correlation with variables (N=208)

	Communication ability r (p)	Interpersonal satisfaction r (p)	Self-efficacy r (p)
Interpersonal satisfaction	.729 (<.001)	1	
Self-efficacy	.676 (<.001)	.601 (<.001)	1
Psychological well-being	.662 (<.001)	.600 (<.001)	.701 (<.001)

### 3.5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 영향요인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영향 변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VIF 값(1.117~2.786)이 모두 10 이하였고, 공차한계(.359~.896)는 모두 .10보다 크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Durbin-Watson도 1.976로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변수를 투입한 1단계 F값은 6.53( $p<.001$ )로 나타나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인 대인관계만족도와 의사소통역량 및 자기효능감을 투입한 2단계에서는 모형의 설명력이 59.4%로 1단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F값은 24.30( $p<.001$ )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남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고졸 이하 학력( $\beta=-.166, p=.005$ ), 의사소통역량( $\beta=.227, p=.002$ )과 자기효능감( $\beta=.442, p<.001$ )으로 의사소통역량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Effect fa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N=208)

Variables	Model I			Model II		
	$\beta$	t	p	$\beta$	t	p
Education(≤High school)	-.101	-1.249	.213	-.166	-2.830	.005
Education(College)	-.077	-1.008	.315	-.044	-.788	.432
Monthly income(<3,000)	-.122	-1.679	.095	.001	.017	.987
Monthly income(5000≤)	.111	1.700	.091	.077	1.636	.103
Job satisfaction(Not satisfied)	-.158	-2.244	.026	-.047	-.923	.357
Job satisfaction(moderate)	-.237	-3.366	.001	-.092	-1.779	.077
Health status(Bad)	-.177	-2.715	.007	-.051	-1.069	.287
Health status(Good)	-.003	-.048	.962	-.025	-.511	.610
Perception of anxiety about old age(Low)	-.001	-.020	.984	-.031	-.576	.565
Perception of anxiety about old age(Moderate)	-.151	-2.218	.028	-.093	-1.884	.061
Interpersonal satisfaction				.093	1.355	.177
Communication ability				.227	3.069	.002
Self-efficacy				.442	6.906	<.001
R <sup>2</sup>	.249			.620		
Adj. R <sup>2</sup>	.211			.594		
F	6.538			24.300		
p	.001			.001		

#### 4. 논의

본 연구는 대인관계 만족도, 의사소통역량,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유효한 영향 변인을 확인함으로써 중년남성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한 간호 중재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행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대인관계 만족도 점수는 평균 3.49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Lee[32]의 대학생 대상의 결과인 3.40점보다 약간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 가계소득, 직업만족도, 건강상태, 노후불안 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Lee[32]의 연구에서는 종교 유무, 소득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종교의 경우, 종교 활동을 통하여 타인과 교류하면서 정서적 환기나 기분전환 등의 경험을 할 수 있고, 가정이나 직장을 넘어서 종교적 유대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활동을 통하여 관계의 폭을 넓히며 영적 안식을 공유하기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계소득, 직업만족도, 건강상태 및 노후불안 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중년남성에게 다른 사람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곳이 직장이고, 직장 내 부딪치는 여러 사람과 업무적인 관련을 맺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업만족도가 높은 군이 대인관계에서 만족감을 얻는 것이라 여겨진다. 중년남성의 대인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관련 연구가 부족하여 직접 비교가 어려웠으나 노동의 결과인 월수입도 직업만족도를 높이고 이는 대인관계 만족도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여겨지는 부분으로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사소통역량의 평균점수는 3.54점으로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한 Kim[16]의 연구에서 생산직의 경우 2.23점, 사무직인 경우 3.48점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 대상자의 의사소통역량 점수가 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사 이상'의 학력이 86.5%인 본 연구에 비해 Kim[16]의 연구에서 '학사 이상'의 학력이 31.9%로 낮게 나타나 학력이 높음에 따라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통하여 의사소통역량이 증가한 것이라고 그 차이에 대한 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의 평균점수는 3.48점으로 동일한 도구로 중년기 대상자를 조사한 Youm[12]의 3.32점, 중년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Choi[33]의 3.03점보다 높았다. Youm[12]의 연구 대상자는 전업주부와 자영업이 각각 19.8%, 12.8% 등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였고, Choi[33]의 연구에서는 무직이 31.3%를 차지하였는데 상대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안정적인 일반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직업 안정성과 높은 직업만족도가 자기효능감을 높인다고 한 선행연구[7]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월수입 300-500 이상, 직업만족도 '보통' 이상 군이 그 이하보다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결과를 나타낸 본 연구를 통해 직업적 만족요인과 관계가 있음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심리적 안녕감의 평균점수는 3.41점이었으며 같은 중년기 대상자에게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Woo[23]의 3.21점보다 높았다. 일반적 특성 중 석사 이상의 학력 군이 고졸 이하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고,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고졸 이하의 학력은 심리적 안녕감에 음의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으면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선행 연구 결과[7]를 지지하였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요구에 맞춰 적응하고 충동적인 감정을 통제하며 정서적 명료성과 인지적 유연성도 증가하여 심리적 안녕감이 향상한다는 Woo[23]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 특성 중 가계소득, 직업만족도, 노후불안 정도가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선행 연구들[22,24,34]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중년남성의 직업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존감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기에 심리적 안녕감을 증가시킨다[21,35]. 또한, 노후 불안은 심리적 위기감을 불러와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35]의 결과와도 지지하였다. 중년남성에게는 직업을 통해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와 그로 인한 경제적 안정과 노후 대비가 전반적인 심리적인 안녕감을 상승시킨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의사소통역량은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요인으로 심리적 안녕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적절한 감정적 교류가 심리적 안녕감에 바람직한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소통능력과 중년기의 행복과 연계되어 심리적 안녕감을 높인다는 Kim[16], 의사소통으로 부부 갈등을 해결하고 친밀감을 높여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Jeong & Lee[3] 및 가족 간 의사소통역량이 아버지 역할 이행 자신감을 제공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Woo[23]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특히 한국적 정서인 체면이나 권위의식으로 가족 간이나 사회적 관계변화에 적응하지 못

하여 유발된 중년남성의 갈등을 해결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데 의사소통역량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는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소통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결국 심리적 안녕감이 증진될 수 있다는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가족 간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고 문제해결의 자신감을 높여 중년기 위기감을 낮추고 심리적 안녕감을 높인다는 이러한 결과는 중년 남성을 위한 의사소통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효능감도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에 따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의 의미를 통합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여러 선행 연구들[7,35]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타인과의 정서적 교류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목표를 추구하는 활력이 심리적 건강에 증대한 영향을 준다는 Kim & Yoo[10]의 연구와도 부합된다. 이는 자기효능감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수용하고 유의미한 존재로 이해하게 되어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므로 [36], 자기효능감이 중년남성의 심리적 안녕감을 위하여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인관계 만족도는 심리적 안녕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는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이 유지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6,37]와 부합된다. 대인관계는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며 모든 인류 문화 속에서 위치하고 있는 기본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자녀의 성장으로 인한 가정에서의 소외감, 직장에서의 은퇴로 인해 사회적 소외감과 상실감을 느끼는 중년기에 대인관계를 통해 자기를 다시 발견하고 인생의 충만함과 보람을 느낌으로써 결국 심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 만족도는 심리적 안녕감의 예측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대인관계 만족도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웠으나, 대인관계가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Kim & Oh[38]의 연구와 만족스러운 대인관계가 삶의 질을 높인다는 Choi[39]의 연구에 미루어 봤을 때, 대인관계가 삶의 질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간접적인 요인이거나, 심리적 안녕감이 오히려 대인관계를 만족하게 하는 변인일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심리적 안

녕감에 대한 대인관계 만족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직장인뿐 아니라 전 직종의 중년남성으로 대상으로 확대하고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매개효과나 간접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 결과에서 대상자의 대인관계 만족도, 의사소통역량,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공통적인 일반적 특성으로는 직업만족도, 가계소득과 노후불안이었다. 이들은 현재의 중년남성에게 높은 영향력을 가진 사회적 조건인 동시에 심리적 위기감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노년의 위기로까지 작용할 수도 있다. 이에 심리적 안녕감을 위해 외부 환경의 변화로 수정이 어려운 사회적 요소가 아닌 심리·정서적 역량 함양을 통하여 내부적 안녕감을 증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다양한 그룹이나 가족 단위로 상호관계 속에서 대인관계 만족도와 의사소통역량의 변화를 보는 질적 연구와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통한 효과를 확인하는 실험 연구 등이 행해진다면 심리적 안녕감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지 프로그램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수도권에 위치한 일반기업의 사무직 대상으로 대상자 표집이 이루어져 직업군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년기 남성 전체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년남성의 대인관계 만족도, 의사소통역량,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중년남성의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일반적 특성은 학력, 가족 수, 가정 월수입, 직업만족도, 건강상태, 노후불안이었다. 의사소통역량, 대인관계 및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안녕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중년남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력, 의사소통역량 및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체계적인 표집으로 일반화된 중년남성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노후대비의 필요성 조사와 심리적 안녕감 강화를 위한 지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된 의사소통역량과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M. J. Kim & K. B. Kim. (2013). Influenc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for the Middle Aged Adults and Elderly.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9(2), 150-158.  
DOI : 10.14370/jewnr.2013.19.2.150

[2] I. J. Lee & H. K. Choi. (2002).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Seoul : Nanam publishing.

[3] Y. S. Jeong & Y. S. Lee. (2018) The Mediating Effect of Empathic and Marital Communication 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ident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Middle Aged Men.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5(2), 327-341  
DOI : 10.35185/kjet.10.3.4

[4] Statistics Korea. (2018). *Causes of Death Statistics in 2017*. (Online). <http://www.kostat.go.kr>

[5] M. L. Kim & K. Y. Song. (2009). Changes of the Level of Physical Self-Efficacy, Depression and Stress of Middle-Aged Men According to the Stage of Exercise Chang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9(9), 393-402.  
DOI : 10.5392/jkca.2009.9.9.393

[6] M. S. Kim, H. W. Kim & K. H. Cha. (2001). Analyses on the construct of psychological well-being(PWB) of Korea male and female adult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5(2), 19-39.

[7] J. Y. Song. (2009).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i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ple Roles commit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aged Men in preparing for the Old Ag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22, 59-81.

[8] H. S. Yoon. (2017). *The Influence of Storytelling Group Coaching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elf-efficacy of the Middle-aged Men of Low Income Class*. Master's thesis. Nam Seoul University, Chungcheongnam-do.

[9] S. M. Kim & S. Y. Kim. (2009). Aging Anxiety and Quality of Life in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8(2), 207-218.

[10] K. S. Kim & S. M. Yoo. (2010).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tress Management on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Brain Education*, 6, 19-53.

[11] J. S. Kim & S. Kang. (2012). Baby Boom Generation's Burden for Taking Care of Children, Aging Anxiety, Preparations for Old Age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3), 440-452.  
DOI : 10.5932/jkphn.2012.26.3.440

[12] S. A. Youm. (2018). *The Effect of Middle-Aged Interpersonal Ability on Self-Efficacy: Mediating effects of authenticity and intergroup gender*. Master's thesis.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Seoul.

[13] S. E. Taylor, H. S. Friedman & R. C. Silver. (2007). *Foundations of health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4] M. S. Kim & H. W. Kim. (2000). Analyses on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 - Being ( PWB ) and Relationship between PWB and Subjective Well - Being ( SWB ) among Korean Married Women.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5(1), 27-41.

[15] O. K. Kim & K. R. Hwang. (2013).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types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y for emotional expression conflict.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2(2), 117-141.

[16] Y. S. Kim. (2015). *The Influence of Middle-Aged Men's Psychological Sense of Crisis on Psychological Well-being : The Mediation effect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of Buddhism, Seoul.

[17] J. H. Park. (2015). *The Effect of Family Function and Self-efficiency on Retirement Anxiety of Middle-aged Men*. Master's thesis. Kyung Sung University, Seoul.

[18] E. H. Jung. (2014). *Effect of Health Status, Marital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to Retirement Preparation of Middle-aged Couples : Analysis of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19] K. H. Kim & S. H. Kim. (2015).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Self-differentiation and Self-efficacy o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4), 289-300.  
DOI : 10.5392/JKCA.2016.16.04.289

- [20] Y. S. Lee & I. K. Seo. (2015).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chievement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ith a focus on the users of life-long education in the community.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29(4), 297-323.  
DOI : 10.18398/kjlgas.2015.29.4.297
- [21] D. J. Kang. (2011).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le mid-life crisis and psychological factors*. Doctoral dissertation. Chongshin University, Seoul.
- [22] S. M. Ok & H. S. Jeon. (2016). The Moderating Effects of Cognitive Strategy for Emotional Regulation and Spouse Support on Retirement Anxie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 Aged Employed Me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7(4), 373-393.  
DOI : 10.15703/kjc.17.4.201608.373
- [23] S. H. Woo. (2016). *The Effects of Personal Traits, Social Traits, and Job Satisfaction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Aged Men*.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 [24] E. J. Lee & J. Y. Lee. (2016). The Effect of Occupational Self-Effica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Middle-Aged Workers: The Mediating Effect of Retirement Anxiety and Healthy Marital Relationship.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23(1), 71-94.  
DOI : 10.15284/kjhd.2016.23.1.71
- [25] B. G. Guerney. (1997). *Relationship enhancement : Skill-training programs for therapy, problem prevention, and enrich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26] S. M. Moon. (1980). A Study on the Effect of Human Relations Training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19(2), 195-204.
- [27] R. B. Rubin & M. M. Martin (1994). Development of a measure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11, 33-44.  
DOI : 10.1080/08824099409359938
- [28] G. H. Hur. (2003).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7(6), 380-408.
- [29] R. W. Rogers.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2), 663-671.  
DOI : 10.2466/pr0.1982.51.2.663
- [30] H. Y. Hong. (1995). *The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31] C. D. Ryff.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DOI : 10.1037/0022-3514.57.6.1069
- [32] E. H. Lee. (2017). *A Study on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Appearance Satisfaction, Self-effica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Master's thesis. Seoul Hanyoung University, Seoul.
- [33] W. S. Choi. (2018). *Self-efficacy, Family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f Middle-aged married women influence Psychological well-being*.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gbuk-do.
- [34] K. S. Chae & M. G. Kim. (2019).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well being of middle aged males in Public Enterprise before Retirement. *Journal of Culture Exchange*, 7(4), 127-151.  
DOI : 10.30974/kaice.2018.7.4.127
- [35] S. H. Jung. (2013). *A study on the effects of a sense of psychological crisis and self-reflection perceived by middle-aged men on psychological equilibrium..* Master's thesis. Kyungsoo University, Busan.
- [36] J. H. Park, J. G. Seol & S. M. Cheon. (2017). The Effect of Family Function and Self-efficiency on Retirement Anxiety Among Middle-aged Men.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4(1), 135-150.
- [37] J. M. Boo, D. O. Kang & E. H. Kang. (2016). The mediating effect of defense mechanism in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stress fro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sychological well-being.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7(3), 295-318.  
DOI : 10.15703/kjc.17.3.201606.295
- [38] H. W. Kim & I. S. Oh. (2016).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Problem betwee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4(1), 151-171.  
DOI : 10.35151/kyci.2016.24.1.008
- [39] M. S. Choi. (2011). The Relationship of Self-Esteem, Mental Health, Perceived Social Support &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According to Purpose in Lif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6(2), 363-377.  
DOI : 10.17315/kjhp.2011.16.2.008

장 정 수(Jung-Soo Jang)

[정회원]



- 2020년 2월 : 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2년 2월 ~ 2015년 6월 : 성남 사랑의병원 수간호사
- 2016년 4월 ~ 2019년 3월 : 루카스병원 수간호사

- 2019년 7월 ~ 현재 : 의료법인 다나의료재단 구로다나병원 수간호사
- 관심분야 : 정신간호학, 인간심리
- E-Mail : silsoul@naver.com

최 동 원(Dongwon Choi)

[정회원]



- 1999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08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0년 3월 ~ 2014년 2월 : 적십자 간호대학 조교수,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간호교육, 노인간호학, 만성질환자 간호
- E-Mail : dionia@iccu.ac.kr